

전공의 ‘무더기 이탈’ 가속화… ‘면허정지’ 맞볼 통할까

의협지도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공백 교수 전임의 등으로 당분간 유지
“2~3주 이상 길어지면 한계 수준” 우려도
2020년 총파업 당시 정부, 2주만에 ‘백기’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전공의 없는’ 병원이 현실화된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2~3주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가동되는 비상진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대략 ‘2~3주 정도’로 여겨진다.

특히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이 크다.

복지부는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 전공의의 ‘무기한 총파업’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도 30~50% 정도의 진료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증·비응급 환자는 종합병원이나 병의원으로 갈 수 있게 해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를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각 병원에서도 급하지 않은 수술이나 입원을 연기하고, 당직에 교수들을 대거

동원하면서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있다. 다만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축소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적이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여러 병원 상황을 보면 대략 2~3주 정도는 기존 교수님들과 전임의, 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전담전문의 등 전공의를 제외한 인력으로 큰 차질 없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비상근무 당직 체계를 짜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상으로 기간이 길어지면 이분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때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중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파업’했던 2020년과 달리, 이번에는 ‘사직’인 만큼 상황이 더 악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의료계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2020년 당시 의대 증원에 반발해 8월 7일 한차례 총파업을 벌였고, 같은 달 14일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에 참여했다. 이후 같은 달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당시에도 수술 취소, 진료 차질 등 ‘의료대란’이 벌어졌고, 결국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지 2주 만에 정부가 ‘백기’를 들었던 전력이 있다.

한편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화위원장 등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첫 사례다.

복지부는 내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 면허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때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판단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면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최대 10년까지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회장이 의료기관에 휴진을 강요한 데 따른 업무개시명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3·13면에 관련기사

충남도, 내년도 국비 ‘11조 시대’ 연다

道, 정부예산 확보 추진 전략보고회 개최

라이프 1천억·대산·당진고속도로 2360억 등

주요 목표별 중점사업 점검·핵심전략 논의

충남도가 내년 국비 11조 원 돌파를 목표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도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실국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최종 확보한 10조 2130억 원보다 7870억 원 많은 11조 원으로 설정했다.

기본 방향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도 핵심 과제 사전 발굴 ▲도청 중점 과제 및 주요 도청 사업 본격 실천 ▲진행 중인 대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통과 등 민선8기 가시적 성과 창출

로 잡았다.

또 ▲22대 국회 출범에 따른 지역 국회의원 공조 ▲2024년 대규모 SOC 사업 완료 및 유보통합 대응 마련 등도 기본 방향으로 내놔다.

목표별 주요 사업 및 내년 확보 목표액을 보면 경제분야에서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1000억 원 ▲착용로봇 혁신 생태계 실증 사업 30억 원 ▲자유형상 디스플레이 실증센터 구축 54억 원 ▲대산·당진 고속도로 2360억 원 등을 제시했다.

발전 분야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설립 3억 원 ▲격렬비 열도항 다목적 기능 항만 조성 5억 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8억 원 ▲농촌융복합 개발 사업 기본조사 신규 지구 12억 원 등을 확보한다.

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16억 원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 3억 원 ▲아산 경찰병원 건립 214억 원 등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23억 원 ▲내포신도시 스포츠 가치센터 건립 2억 원 ▲장항 국기습지복원 사업 685억 원 ▲충남 청소년 직업체관 31억 원 등은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설정했다.

도는 이번 목표 달성을 위해 ▲2~3월 실국별 부처 정책 간담회 ▲4~5월 지휘부 부처 방문 활동 ▲6~8월 부처 반영 상황 보고회, 기획재정부 편성 예산심의 대응, 국회의원 초청 도청 설명회,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 정당별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펼친다.

9월부터는 정부예산안 최종 반영 보고, 국회 캠프 운영, 지휘부 국회 방문 활동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한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전략사업 발굴, 대형 SOC 사업 적기 추진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취재본부 / 한상규기자

이낙연, 개혁신당과 11일만에 결별… “민주주의 정신 훼손”

“그들저를 자우기로 일찍부터 기획” 주장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 黨 재정비”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가 개혁신당과 통합 선언 11일 만인 20일 합당 철회를 선언했다.

총선 지휘권을 놓고 다툰 윤 이준석 공동대표와 끝내 결별하기로 한 것이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같은 새로운미래 출신 김중민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다”며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협받게 됐다”며 “더구나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저를 자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낙연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를 창당했다가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이준석 공동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에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과 함께 합당 형태로 합류한 바 있다.

이준석 공동대표 측과 총선 주도권을 놓고 갈등해온 이낙연 공동대표 측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미래 측의 반대에도 이준석 공동대표의 요구로 총선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 권한을 이준석 공동대표에 위임하는 안건이 의결되자 강하게 반발해왔다.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단신브리핑

한우 암소검정사업 결과보고회

강원특별자치도는 21일 흥천 늘푸름한우프라자에서 2023년 한우 암소검정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도내 한우 암소에 대한 혈통 등록 및 유전능력, 개체별 선형심사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해 한우농가의 암소 개량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암소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농가 개량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우 암소검정사업을 통해 농가에 저능력우 도태지표를 제공하고 농가에서 요청할 시 도태 장려금을 두당 50만 원씩 지원한다.

또 한우 암소 능력지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도 병행하고 있으며 수정란 이식비용을 두당 50만 원씩 지원한다.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전공의 집단행동 대비 대책 회의 개최

부산시는 최근 두 차례 시정에서 전공의의 집단 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이준승 부시장 주재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시는 병원 상황과 대처방안, 전공의 공백에 따른 환자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부시장은 이날 병원장들에게 응급, 중환자, 수술, 투석 등 필수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각 병원별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공의의 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는 경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어, 각 의료기관에서 진료 안정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 이채열기자 oxon99@jeonmae.co.kr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 점검

충북도는 해빙기 기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민간전문가 등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4월 3일까지 실시하며 인명사고 및 재산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 산사태 위험지역, 건설현장 등 1197개소에 대해 집중 실시된다.

점검 점검 내용은 ▲급경사지 사면의 활동 ▲옹벽 또는 석축 등의 배부름 현상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에 균열 또는 침하 등의 이상징후 등 해빙기 안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경북도, 저출생 대응 본격화... 패키지 비상대책 제시

완전돌봄·안심주거·양성평등·일·생활균형 등 4개 분야 35개 실행과제·단계별 로드맵 제시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는 20일 주환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감경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장, 지역 시도 민회, 교육감, 경찰청장, 시장군수, 시군 의회의장 등 1,000여 명의 지역 주요인사들과 함께 국가 위기 상황을 공유하

고 대응 의지를 다졌다.

도는 ▲완전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4개 분야에 걸쳐 35개 실행 과제를 제시하고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중 온종일 완전 돌봄, 아이·가족·양육 친화형 공공 행복주택 공급, 완전 돌봄 클

러스터 등 '돌봄, 주거' 대책을 중심으로 10개 사업은 핵심 과제로 분류해 고정 역량을 집중기로 했다.

특히 '우리동네 돌봄마을' 돌봄을 개인 부담에서 공동체 부담으로 재인식시키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이장동장협의회, 의용소방대연합회, 자율방범대연합회, 지역대학 등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도 함께 이뤄져 실행력을 담보한다.

도는 앞으로 예전 마을공동체 돌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도시형, 농촌형, 산업단지형 등의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체 돌봄 모델을 정립, 확산시킬 예정이다.

사업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과 도민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저출생 극복 성금 모금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출생 극복 지원금 5억 원을 도에 전달했으며 농협과 대구은행에서도 각각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도는 조기 추경 편성으로 핵심 시책을 연내 구체화해 나가면서, 릴레이 현장토론회, 청년들과의 대화, 대국민 시책 공모 등으로 공감대 확산, 법·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속도감 있게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으로 오늘을 대한민국을 일으킨 경북의 저력으로,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데 전 도민이 앞장서달라"고 밝혔다.

경북/ 신문대기자 shinyd@jeonmae.co.kr

사우디와 경제교류 협력기반 구축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20일 시청 세종실에서 사미 알사드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과 만나 시와 사우디아라비아 간 우호증진과 경제, 지능형도시 분야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앞서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022년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의 공식 방한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국빈

통한 경제 다각화로 국가 성장을 이루겠다는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했다.

현재는 새로운 미래를 구현하는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면적 2만 6,500㎢, 총사업비 671조 원, 100% 재생에너지로 운용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의 지능형도시 '네옴(NEOM)'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과 함

최민호 세종시장,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만나

경제·지능형도시·사우디 비전 2030 협력 등 논의

방문을 하는 등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날 최 시장은 사미 알사드한 대사에게 지능형도시, 정원관광, 한글문화를 중심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거듭하고 있는 미래 전략수도 세종시의 도시미래상을 설명했다.

또 탈석유·첨단기술·친환경 부문을 포함한 '사우디 비전 2030'과 관련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지난 2016년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보건, 인프라, 관광 분야 등의 육성을

계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지능형도시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미 알사드한 대사는 "사우디와 세종시가 미래 지향적 지능형도시 조성을 추구한다는 점에 착안해 앞으로 사우디와 세종시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유양준기자 yyjou@jeonmae.co.kr

충남도, 의료공백 대비 비상진료대책 마련

도시군 상황실 등 비상체계 구축 "의료공백 최소화행정력 모을 것"

충남도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는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 도와 각 시군에 비상 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은 도 보건정책과를 주축으로 구성했으며,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운영한다.

주요 역할은 ▲비상진료 대책 수립 ▲집단행동 기간 비상진료기관 운영 현황 점검 및 도민 안내 ▲시군 및 보건복지부와 연락체계 유지, 상황 보고 등이다.

우선 도는 수술실·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 지정 병원 16개소와 응급실 운영 병원 5곳에 24시간 비상 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집단휴진 기간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 시간을 확

대하고 주말·공휴일 진료 등 비상 진료도 추진한다. 아울러 도민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기관 운영 여부를 살펴 문 여는 의료기관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정보를 소방과 공유하고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동유 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살고싶은 도시 살기좋은 양천

제13회 양천 마라톤

2024.4.27.(토) / 오전8시 안양천 해마루축구장

대회종목 하프 | 10km | 5km | 10km 커풀런 | 5km 패밀리런

접수기간 2024. 1. 22.(월) ~ 4. 2.(화) 16:00까지 ※선착순 마감

대회접수 ycrun.com

기분좋은변화 함께뛰는양천

2024.4.27.(토) / 오전8시 안양천 해마루축구장

대회종목 하프 | 10km | 5km | 10km 커풀런 | 5km 패밀리런

접수기간 2024. 1. 22.(월) ~ 4. 2.(화) 16:00까지 ※선착순 마감

대회접수 ycrun.com

기분좋은변화 함께뛰는양천

강신환 (強腎丸)

오직! 당신만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효과도 없는 제품을 구매하시겠습니까?

☒ 1일 한봉지(1봉 70~80환) 20일 정도만 드시면 놀라운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순수 천연생약 성분으로만 특수배합하여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드셔도 전혀 부작용이나 해가 없습니다.

관리란 휴대와 섭취 간편한 천연 식품로만 구성된 원료! 부작용의 우려가 없음

내용량: 90g

전립선 비대증으로 밤중에 자주 화장실을 가시는 분

잦은 소변으로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신 분

잔뇨·빈뇨·야뇨·부종으로 고생하시는 분

중년의 남/여 고민은 강신환이 해결해 드립니다.

새로운 출발, 오존기법 특별할인가

BOX (30봉) 안달분 → 200,000원 259,000원

※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셔도 환불 가능합니다.

제품구입문의 TEL : 010-3758-7900

토지소유자 소재확인 공고(2차)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 2항에 의거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련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주	주소
이복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635-28
이수규	
권병용	
강민숙	
진희승	
김정재	

■ 공금자 : 서울도시가스(주)

■ 연락처 : 031)910-8500

2024년 2월 21일

이해의 갈등을 여는 법마의 질문 말 좀 통하는 법마

법정적으로 지시하거나 재판기도 우선 아이의 마음을 여는 것을 목표로 대화를 목표로. 부모의 행복한 대화는 아이의 자라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다.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는 법마의 질문,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원점으로 순환해줄 때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

010-8771-1111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동 1304호 | 03030

유니버설 | 010-8771-1111 | 03030-1111 | www.universal.co.kr

생활안정보 << 최소비용 최대효과 >> 누리세요

전국매일신문 광고문의 1588-5762 FAX: 031) 755-5653

여야 '낙동강 혈투'·'수도권·중원 리턴매치' 대결 구도 윤곽

전국 곳곳서 4·10 총선의 여야 대결 구도가 확정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낙동강 벨트 등 부산·경남(PK)을 중심으로 단수공천 발표 '1라운드'를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심사 3차 결과까지 발표하면서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0일 현재 국민의힘은 부산 북강서(김도읍)·기장(정동만), 대구 달서(윤재욱)·달성(추경호), 울산 동구(권병호), 경남 창원 마산합포(최형두)·창원 마산회원(윤한홍)·창원 성산(강기윤)·진주갑(박대출)·진주을(강민국)·거제(사일준)·양산갑(윤영석) 등 영남권 일대에서 상당수 현역을 단수공천했다.

'낙동강 벨트'를 이루는 부산 북강서갑, 경남 양산, 김해에는 각각 서병수 김태호 조해진 의원을 지역구 재배치 방식으로 전략공천(우선공천)하며 김두관(양산), 김정호(김해) 등 민주당 현역과 맞대결을 확정 지었다.

양산은 김태호 김두관 의원 모두 경남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국적 관심을 끄는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부산 사하갑에서는 민주당 최인호 의원을 상대로 이성권 전 부시장이 국민의힘 단수공천을 받았다. 두 사람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선후배 사이여서 주목받는 대결로 떠올랐다.

수도권·중원에는 '리턴 매치' 또는 그와

공천 반환점 돈 여야·PK 공천 속도·수도권 진지전 고심

동작을 종로·분당갑·계양을 등 수도권 곳곳 빅매치 구도

부여·공주 정진석·박수현 등 중원 재대결 지역도 주목

유사한 성격의 대진표가 성사된 곳이 많아 주목도가 높다.

서울 광진을에선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과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충남 공주·부여에서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민주당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의 세 번째 맞대결이 펼쳐진다. 지난 20·21대 선거에서는 모두 정 의원이 이겼다.

서산·태안에서도 재선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민주당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세 번째로 맞붙는다.

서울 동작을의 경우 국민의힘은 나경원 전 의원을 일찌감치 공천해 '판사 재대결'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판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지역구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들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추천 장관이 민주당 후보로 결정되면 판사 출신의 스타급 여성 중진 맞대결 구도다. 만약 현역인 이 의원이 다시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이 의원의 수성이나, 나 전 의원의 설욕이나를 놓고 4년 만의 '리턴 매치'가 벌어진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도 국민의힘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천, 이른바 '명룡(이재명·원희룡) 대전'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가 계양을에서 재선에 도전한다면 두 사람의 '빅매치'가 이번 총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분당갑에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4선에 도전한다. 분당갑에는 대표적 친노(친노무현) 정치인인 민주당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도전장을 내 두 사람 간의 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 전 총장은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지호 당 대표실 정부조정부실장 등 다른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분당갑에 출사표를 낸 만큼 당내 경쟁을 먼저 넘어야 한다.

서울 종로에도 국민의힘은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현역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민주당은 아직 이 지역구 공천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박상언 변호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4선 출신의 이종걸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정부와 의료계는 서울대·세브란스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 모습.

연합뉴스/윤동진기자

전공의 50% 이상 등 돌렸다…병원혼란에 환자 '부글부글'

전공의 절반이상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 의료현장은 혼란에 빠졌고 환자들의 한숨을 깊어지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주요 수련병원 100곳 수련병원 전공의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천630명만 근무지를 벗어났으며 사직서를 낸 뒤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전공의 대신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보상하기로 했다.

또 권역이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전공의들의 근무 중단이 가속화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전공의가 근무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곳곳에서 수술과 입원이 연기되고, 퇴원은 앞당겨지는 등 환자

일부터는 수술 일정을 '절반'으로 줄일 예정이다.

병원들은 일단은 전공의들의 빈 자리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대응할 예정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환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오는 28일 수술 예정이었다는 한 갑상선암 환자는 수술이 취소됐다는 소식에 "암 수술 전부터 취소하니, 암 환자는 암을 키우라는 거냐"고 토로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미 병원 현장이 이수라장"이라며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곳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6개월간 수술을 기다린 환자들의 수술 예약이 취소된 사례도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불편이 현실화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현재 의료원 전공의 사직 관련으로 진료 지연 및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특수 처치 및 검사가 불가한 경우 진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문을 진료실 주변에 붙였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이날 응급·중증 수술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당장 21

"전공의 55% 무더기 사직...758명에게 업무개시명령"

"병원 현장 이수라장"...수술·입원 연기 속출 큰 피해 예상

자녀 수술에 휴직했지만 입원 지연... "암 키우라는 거냐" 분노

전체 증가 폭 8조·주담대 15조 ↑

카드 미결제액 1.5조 ↑...연속 증가

작년 4분기 전체 가계 빚이 전 분기보다 8조 원 늘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높은 금리에도 주택담보대출이 15조 원 이상 늘었고 연말 카드 사용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86조4천억 원으로 기존 역대 기록이었던 작년 3분기(9월 말·1천878조3천억 원)보다 0.4%(8조 원) 많았다.

가계신용은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2022년 4분기(-3조6천억 원)와 작년 1분기(-14조4천억 원) 잇따라 뒷걸음쳤지만, 2분기(+8조2천억 원) 반등한 뒤 3분기(+17조 원)를 거쳐 4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늘어나는 추세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4분기 말 잔액이 1천768조3천억 원으로 3분기 말(1천761조7천억 원)보다 0.4%, 6조5천억 원 증가했다. 역시 잔액이 종전 기록인 작년 3분기(1천761조7천억 원)를 넘어섰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천64조3천억 원)이 15조2천억 원 급증하며 직전 분기에 이어 최대 잔액 기록을 또 경신했다. 증가 폭은 3분기(+17조3천억 원)를 밀돌았지만 2분기(+14조1천억 원)보다는 컸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잔액 703조9천억 원)은 8조7천억 원 줄어 아홉 분기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대출 장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이 3개월 사이 11조4천억 원 늘어 3분기(+10조 원)보다 증가 폭이 더 컸다.

반대로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계급기관에서는 5조8천억 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이 여전히 15조 원 이상 늘었다.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건강속으로
시민결로

준비된

결혼·출산·육아

출산율 반등!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제322회 임시회] 개최 2024. 2. 20.(화)~3. 8.(금)





한동훈 “김영주가 하위 20%면 이재명은 1%”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현역의원 하위 20% 감점’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하위 1%에 들어갈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20%에 들어가냐”며 “그게 야당의 시스템 공천인가”라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은 ‘하위 20% 통보’에 반발하며 전날 민주당을 탈당했다. 재선의 박용진 의원은 ‘하위 10%로 통보받았다고 공개했다. 둘 다 비이재명계로 분류된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시스템 공

더라”고 회고했다.

이어 “저분 저래도 되나” 그때 좀 걱정됐다. 그 일로 소위 ‘개팔’들한테 큰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며 “그런 식의 합리적·상식적 의정활동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한 자리 놓고 경쟁하다 보면 애석하게도 훌륭한 분들이 공천받지 못하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며 “거기에 수긍하지 못할 때 품위 있게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역시 시스템의 일환”이라고 답했다.

그는 특히 ‘낙동강 벨트’인 경남 양

“단식 등 의정활동 못해…野시스템공천, 원 원하는 결과만”
‘양산을 재배치’ 승복한 한옥문 거명…“그분의 길 국힘 승리”

천이 왜 모든 함수를 통해 다 이재명이 원하는 결과만 나오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그분은 단식 하느라 의정활동 제대로 못 하지 않 았나. 재판 다니느라 의정활동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 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보려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제대로 안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김영주 부의장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으로 기억한다. 법무부 장관 할 때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황당한 소리를 할 때 국회 부의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대단히 품격 있게 안 의원을 제지하

산월에 출마했지만, 김태호 의원이 이곳에 재배치·단수공천을 받아 이에 승복하고 지지를 선언한 한옥문 전 양산시의회 의장을 가리켜 ‘쉽지 않은 일이다. 인생을 걸고 준비한 일 이었고, 얼마나 상심이 크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분의 길이 국민의힘의 길이요,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며 “우리가 그런 공적인 헌신의 자세로 올 4월에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는 국민의힘의 승리이면서 한옥문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홍익표 “尹정부, 민생 파탄·국적 추락…대안은 민주당뿐”

“보복수사 등 입틀어막기 다반사”

“여야·진보·보수 첫 번째 협업 과제

사람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질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격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 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다”며 “여기에는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 지난 시기 저희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사죄했다.

그러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민주당뿐”이라며 총선 지지를 호소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의 갈등과 경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지금 우리 정치는 서로를 조롱하며 극단으로 치달아 대화와 타협의 문을 닫는 나쁜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권력의 마 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암수수색과 보복 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 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줄 업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 나가는 참담한 모습을 봤다”며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진기자

대한 대통령의 응답과 사과는 일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채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와 관계자들,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재판받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권력의 독주, 독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계속돼야 한다. 이제 우리 정치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협업하자”라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보수의 경제 능력은 어디로 갔느냐. 무역 강국의 뱃길을 열었던 보수의 외교 능력은 또 어디로 갔느냐”라고 되물었다.

또 “북방정책을 강력히 추진, 성공시켰

던 과거 보수 정부를 생각해 보라”며 “강경 일본도인 미국의 네오콘과 미국 우선주의자들에게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지 설득해야 한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에도 협력을 얻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증세도 보수 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경쟁과 협업’을 거듭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첫 번째 협업 과제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이라며 주택·의료·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최저임금 보장·노동시간 단축 등을 제시했다.

또 “여야가 힘을 모아 과감한 정책 지원

을 통해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적극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보다 앞선 기술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통 크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혁신 경제 정책을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해 관련 지원 제도와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며 “저출생 관련 대책은 정당을 찾은 시간이 없다. 가정, 기업, 정부가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합의된 것부터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지방의정 이모저모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파주 임진각 관광 발전·경제 활성화해야”

학교부지 문제 해결 관리계획도 제안

경기미래교육 캠퍼스 예산 증액 요청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파주5)은 “파주 임진각의 관광발전과 경제금융교육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김 지

사를 상대로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파주 임진각 관광지 정비와 발전 ▲경기도 소유 학교부지의 합리적 처리 ▲경기미래교육 캠퍼스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또 많은 도민들이 전세사기, 금융사기와 불완전판매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경제금융교육의 시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파주 임진각 관광지의 현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경기관광공사와 파주시간 임시주차장

매각 문제와 임진각 관광지의 시설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진각 인근에 관광객이 숙박할만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요청했다.

이어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위해 도가 소유하는 학교부지의 도교육청 이관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유지보수 예산과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의 증액을 요청했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학교 급식실 등 확충 필요”

경기도의회 유호준(남양주시 다산·양정동) 의원은 “학교 급식실 과밀로 3교대로 이뤄지고 있어 이의 확충이 시급하다고”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청이 기준을 세워 급식실 확충을 위해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현장마다 사정이 달라 각 학교에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급식실 확보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유휴공간, 대체가능한 교실 등을 찾아 우선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남양주시 지역 교육인프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급식실 과밀 문제 해소 뿐만 아니라 ‘2024년 의정활동 목표’에 담겨 있는 ▲남양주시 특수학교 초과밀 문제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 신설 지원’ 등 여러 지역과 교육 현안 관련 임태희 교육감의 생각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를 드러냈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일상, 당신답게

지키다, 삼성화재답게

강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성 실험 _ 기업안전연구소

당신의 일상은 변화의 연속이니까
우리는 먼저 준비하고, 미리 대비합니다.

교통사고 'Zero' 사회를 만드는 _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재해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_ 기업안전연구소
빅데이터 기반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드는 _ 헬스케어서비스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경기도민 복지수준 향상 다양한 방안 모색

도의회 이인애 의원,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고양2)은 최근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위해서 관련 기관과 함께 정담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 의원은 “미혼모 자녀의 진부 책임 강화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급식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차오염 증가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고 조리실무사들의 급식 조리 환경개선으로 업무 경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 만족도 향상을 통해 도민의 사회서비스 이용 확대를 도모하자”고 요구했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부동산AD)

3월 전국서 3만6천여가구 집들이…4월부터↓

수도권 1만6511·지방 1만9593가구
“서울·수도권 입주↓전셋값↑예상”

내달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전국에서 3만6천여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하면서 이를 지역의 매매가와 전셋값 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전국 49개 단지, 3만6천104가구(임대 포함)가 입주를 시작한 가운데 수도권은 1만6천511가구, 지방은 1만9천593가구다.

2월(2만8천139가구)에 비해 입주 물량이 늘었지만 4~5월에는 월평균 2만가구 대로 입주 물량이 감소할 예정이어서 전세시장에서 신축 아파트의 희소 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라고 부동산R114는 전했다.

올해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33만2천가

구 중 10만4천가구(31%)가 1분기에 입주를 시작하고, 2~4분기 분기별 입주 물량은 평균 7만6천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3월 입주 물량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1만2천49가구), 대구(5천23가구), 경북(4천313가구), 인천(3천502가구), 충북(2천979가구) 순으로 많다.

경기에서는 복수원자이렉스비아(2천607가구), 용인드마크데시앙(1천308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예정돼 이월대 전셋값이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은 2월(5937가구)에 이어 3월(9607가구) 입주 물량이 1천가구를 밑돌면서 학군 및 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 위주로 전셋값 상승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와 경북의 물량이 많다. 대구 한양수자인더팰리시티(1천217가구), 동대구역센텀화성파크드림(1천458가구), 포항시 한화포레나포항(2천192

가구), 포항 힐스테이트초곡(1천866가구) 등 대구와 포항에서 각각 2곳씩 대단지 입주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매매가 및 전셋값 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입주가 몰리면서 가격 낙폭이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

3월 입주 예정 물량을 전용면적 구간별로 살펴보면 전용 85㎡ 이하 아파트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전용 40㎡ 초과 60㎡ 이하 물량 비중이 56%(9천3057가구)로 가장 많고, 전용 60㎡ 초과 85㎡ 이하가 37%(6천627가구)로 뒤를 이었다. 반면 지방은 전용 60㎡ 초과 85㎡ 이하가 84%(1만6천52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1~2인 가구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집값 수준이 높은 수도권에서 소형 공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금강주택은 판교 부촌 대장지구에서도 명당 입지에 마지막 남은 대형 면적의 테라스하우스 '판교TH212' 분양에 나섰다. 사진은 성남판교TH212 조감도.

(금강주택 제공)

금강주택, 하이엔드 테라스하우스 ‘판교TH212’ 분양

금강주택은 판교 부촌 대장지구에서도 명당 입지에 마지막 남은 대형 면적의 테라스하우스 ‘판교TH212’ 분양에 나섰다.

청약 일정은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7일이며 정당계약은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판교TH212는 금강주택이 만든 하이엔드 테라스하우스 브랜드로 TH(Terrace House)와 공급 세대인 212세대를 합친 단어다. 판교TH212는 경기도 성남시 분

향상) 명당자리에 입지한다.

단지가 자리잡는 대장지구는 뛰어난 교통망과 수준 높은 생활 인프라, 명문 교육환경을 갖췄다.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GTX-A(예정), 신분당선, 분당선, 서판교IC 등 초고속 교통망을 더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판교신도시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서울대병원 및 판교대장지구 내 상업·근린생활시설 이용이 편리한 생활인프라의 중심이다. 낙생고, 성남외고, 이우중·고교 등 명문학교와 10분 거리에

누릴 수 있다.

프리미엄급 단지답게 상품 설계도 신경 썼다. 유럽식 중정식 정원,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조경계획, 조경의 물입감을 위한 열식 식재계획, 다양한 수경 아메니티 등 쾌적한 가든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다. 입주민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 등은 물론 수임 명품 운동기구를 도입한 차별화된 피트니스, 맘카페,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센터도 조성된다.

타입에 따라 테라스, 가변형 벽체, 알

전용면적 110~183㎡ 총 212세대 분양…분양가상한제 적용
생활인프라·초고속 교통망 등 쉽게 이용…쾌적한 가든 라이프 구성

당구 대장동 산 19-47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1층~지상 4층, 11개 동, 전용면적 110~183㎡, 총 212세대로 구성된다. 판교TH212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할 것이 예상돼, 시세차의 기대로 벌써부터 문의가 몰리는 상황이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

판교TH212는 판교를 대표하는 부촌인 대장지구에 들어선다. 이 중에서도 단지에 걸맞게 자연의 흐름과 같이 하는 안정적이며 재물이 모이는 터인 비룡심수형(날아가는 용이 물을 찾는

정자·미공역 학원가 및 대장 초·중, 반다유치원, 공공도서관(예정)이 형성돼 있다. 또한 고기리 계곡, 청계산, 광고산, 바라산 자연휴양림 등이 가까워 쾌적한 자연환경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여건이다.

대장지구에서 마지막으로 전용 85㎡ 초과 대형 면적으로 선보이며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4개 평면, 총 20개 타입의 수요자 맞춤형 구성으로 설계된다. 100% 정남향 배치에 테라스와 다락을 특화 설계해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파룸, 3면 개방 파노라마뷰, 현관창고, 팬트리, 대면형 주방(아일랜드), 다락 등이 도입되며 다양한 구성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구조와 공간 배치에 따라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세계 주방기구 시장을 선도하는 독일 유명 주방기구와 유럽산 가전브랜드 및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브랜드의 드레스룸, 욕실, 마루 등을 선택해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 집 인테리어를 구성할 수 있다.

건본주택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26(양재화물터미널 내)에 위치해 있다.

/ 성남

경과원 ‘경기창업 공모’ 통해 예비기업 발굴 안간힘

총상금 1억 1천5백만 원…10곳 선정
전문 멘토링 등 다양한 혜택 제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2024 변화와 기회’의 경기창업공모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초기창업기업 10곳을 발굴해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내달 20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으며 10개의 입상팀을 최종 선정 총상금 1억 1천5백만 원과 다양한 창업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창업공모전은 우수한 사업화 과제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도 대표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모집부분은 ▲예비 창업자 대상 ‘예비 창업리그’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대상 ‘창업리그’ 부문으로 나뉜다.

도내 시군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시군 창업경진대회에서 지자체장상 수상자에 한해서는 1차 예선(서면심사)를 면제한다.

공모전은 1·2차 예선과 본선 발표심사

를 거쳐 9월 결선대회까지 예비창업자와 창업자 리그를 분리 운영한다.

최종 입상팀에게는 시상금 외에도 경기창업지원시설에 입주시 가점, 특례보증 혜택 등 경과원이 주관하는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본선 이상 진출 30개 팀에게는 3개월간 멘토링과 데모데이 등 액셀러레이팅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기회도 제공한다.

강성현 경과원 원장은 “창업공모전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예비·초기창업자의 도전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내 창업문화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영민기자
han YM@jeonmae.co.kr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로 AI 통역 매끄럽게 쓴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진행

삼성전자 무선이어폰(TWS) 갤럭시 버즈에서 생성 인공지능(AI) 통역을 더 매끄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0일 삼성전자가 뉴스룸에 따르면 생성 인공지능 ‘갤럭시 AI’ 기능 연동을 끝자로 한 갤럭시 버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달 중순부터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버즈를 착용하고 ‘통역’ 기능을 사용할 때 스마트폰을 주고

받을 필요 없이 버즈를 통해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소개했다.

갤럭시 버즈2 프로에 도입된 오디오 공유 기능 ‘오래캐스트’도 기존 TV에서 갤럭시 S24 시리즈 등 스마트폰 및 태블릿으로 확대된다. 한 스마트폰에 여러 대의 갤럭시 버즈2 프로를 연결해 동시에 음원을 들을 수 있다고 회사는 전했다.

생생한 소리를 전달하는 ‘360 오디오’ 기능은 TV로 확대됐다.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Kdn 한전KDN

www.kdn.com

에너지로 사람들을 밝힙니다



배려가 에너지가 될 순 없을까? 나눔이 에너지가 될 순 없을까?
이 생각이 사회를 향한 한전KDN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밝히는 에너지CT기술,
한전KDN이 시작합니다



요양원 헬스케어 밴드 서비스



중소기업 무료 보안컨설팅



KDN 디지털 IT을 지원



지역 공나무 육성 로봇코딩교실



스마트 홈 운영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 산불예방·진화활동에 본격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기상상대 별 근무요령에 따라 상시 비상근무제에 돌입, 상황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관악산 등 관내 주요 산에 배치된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산불예방과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한다.

진화장비, 통신장비, 산불소화시설 등 진화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산불 전문예비 진화대'를 운영해 산불발생 취약지역 중심으로 순찰과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구청 이모저모

‘유아숲 체험원’ 이용기관 접수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영등포공원 ‘유아숲 체험원’의 정기 이용기관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는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장에 유아들과 비장애 유아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어울림반’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숲체험이 처음인 기관은 유아숲지도사 주도 하에 진행되는 ‘기본숲 체험반’에 참여 가능하고, 숲체험 경험이 있거나 기관 내 자체 유아숲지도자가 있는 기관이라면 ‘자율 숲 체험반’을 이용할면 된다.

숲 체험반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9일 까지 영등포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해 제출서류를 준비한 뒤 영등포공원 관리사무소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유해환경 근절 심야 단속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민관합동 지도단속에 나섰다.

20일 구에 따르면 지난 15일 야간 및 심야에 성북구보건소 관계 공무원, 소비자위생감시원 등 18명이 함께 불법 유해업소 단속을 목적으로 장외동 일대에서 일제 지도단속을 시행했다.

구는 이날 맥양집 형태의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과 더불어 업소별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행위,위생 지도·점검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음식점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모집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보전업무를 보조할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총 43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이며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선거비용 관련 업무,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의 행정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서류전형에 한해 우대한다. 특정 정당·후보자 또는 특정 업체와 관련된 사람은 배제되며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

‘엄빠택시’ 본격 운영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24개월 이하 영아양육과정의 안전하고 편안한 외출을 지원하는 ‘엄마아빠택시’를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엄마아빠택시’는 카시트와 공기정정기, 태블릿PC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대형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양육자가 영아동반 외출 시 이동 목적, 장소, 시간제한 없이 이용 가능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자정이다. 부모는 물론 같은 주소지에서 영아를 키우는 (외)조부모와 3촌 이내 친인척 등 실질적인 양육자도 이용가능하다.

문화유산과 신설...순찰 범위 확대
외부 시설물까지 24시간 모니터링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스마트하고 체계적인 '문화유산 안전관리'를 총력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종로구 문화유산은 총 479개로, 서울시 전체 문화유산 2,055개 가운데

24%에 육박하며 그중 80개를 구가 관리한다.

이에 구는 올 1월 1일자로 문화유산과를 신설하고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 보존에 중점을 둔 '2024년 문화유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낙서 테러나 방화 같은 범죄의 선제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구는 먼저 24시간 순찰을 통한 안전

점검과 경복궁 낙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화유산 내부뿐 아니라 외부 시설물까지 순찰 범위를 확대했다.

흥인지문이나 국가 지정 중요 문화유산에는 경비원을 배치해 무단 침입, 훼손을 방지하고 방범·방재 시스템과 연계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한다.

해빙기, 풍수해, 명절 연휴, 동절기 대비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훼손이나 방

범 시설 작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목조문화유산에는 방재 IoT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 관제센터로 즉시 연계해 골든 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CCTV 사각지대에도 적외선 감지 카메라를 설치, 방범 기능을 강화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조상의 지혜와 유구한 역사가 깃든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에 매진하고자 한다”며 “사건, 사고 선제 대응뿐 아니라 구민을 위한 문화유산 활용 정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중랑무지개 생활통역단 운영...후배 이민자 돕는다

중랑구, 다문화가족·서울시 내 어린이집 등 무료 통역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랑무지개 생활통역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활통역단은 10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결혼 여성 이민자로 구성됐다. 이들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관광통역사, 사법통역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 후배 이민자나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 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시 이민자와 내국인 간의 생활 통역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통역단은 처음 구성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042건의 통역 활동을 활발히 진행했다.

지원 서비스는 전화상으로 이루어지는 유선 통역 서비스,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출장 서비스, 비대면 플랫폼(zoom 등)을 이용한 비대면 서비스, 자료 번역 서비스 등이다.

약 9개 언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우즈베크어 등)를 지원하며 기타 언어는 중랑구가족센터에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중랑구 내에서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더 많은 기관이 생활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중랑무지개 생활통역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류경기 구청장은 “중랑무지개 생활통역단을 통해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길 바란다”며 “특히 비대면 유선 서비스는 긴급한 경우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해 줄 수 있어 이민자들에게 중요한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강남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올해 4차례 진행

재건축·재개발 궁금증 해소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21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올해 첫 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구는 주택 정비사업별 주요 내용을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교육을 4차례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정비사업의 주요 이슈들을 사례별로 쉽게 설명해주는 4차례의 교육을 열어,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불편과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1일 진행되는 교육에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하는 전문가를 초빙해 조합원 및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 및 기부채납을 주제로 강의한다. 앞으로 아카데미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이해 및 절차, 시공사 선정 및 공사 계약, 정비사업 단계별 세무·회계·실무 등을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



은마아파트 전경.

(강남구청)

다.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당일 강연장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재건축의 주요 이슈인 모아타운 및 기부채납을 주제로 강의한다. 앞으로 아카데미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이해 및 절차, 시공사 선정 및 공사 계약, 정비사업 단계별 세무·회계·실무 등을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

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강남의 도시 환경구조가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구민과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모두 높여겠다”고 밝혔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광진구, 종교계 문화예술 행사 최대 1,000만 원 지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종교계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공모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구청 문화예술과에 ‘종무팀’이 신설되면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종교단체의 풍부한 행사 경험과 물적 자원을 활용해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규모는 총 4,000만 원으로, 종교계가 주관하는 행사를 단체별 250~1,000만 원씩 지원한다. 음악회, 국악제, 미술전, 전시회 등 내용 제한은 없으며, 종교인 뿐 아니라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면 된다.

대상은 지역 내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단체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오는 26일까지 광진구 문화예술과로 신청서와 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를 제

출하면 된다. 공모에 선정되면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단, 일정 비율 이상 자부담을 부담해야 하며, 인건비

나 공과금처럼 행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금천구 ‘사랑의 온도탑’ 올해도 100도 넘어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품모집 실적이 15억 3,000만 원으로 목표액인 14억 4,000만 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나눔의 마음은 금천구 곳곳에서 전달됐다. 매년 사업에 참여하는 시흥교회, 관악농협, 티뷰크사회복지재단, 천재교육 등에서 올해도 김치와 쌀, 교재 등 4억 8,000만 원 상당의 성품을 기탁했다. 구는 성품을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8,700여 가구에 전달했다.

소상공인과 기업체 및 종교단체의 나눔도 이어졌다. 관내 상점부터 기업체까지 총 122곳에서 약 5억 1,000만 원 상당의 성금·품을 전달했다. G밸리 건물 10곳에서 입주업체들과 함께 라면과 성금 등으로 총 5,0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 특히 이번 사업 참여자 중 ㈜래피전, 와이피코㈜, 시흥교회, ㈜가산 웰스홀딩스 등 4곳은 고객기부자를 위한 ‘금천 나눔의 전달’에 등재됐다.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노원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민원처리실제·만족도 등 인정받아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5개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의 민원행정 관련 활발한 대내외 활동,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 야간세무상담 등 전문분야 특화서비스 제공,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분야에서는 만점을 받았다.

구는 지난해 평가에서 ‘나’등급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민원처리현장 전반을 재점검하며

개선점을 발굴해왔다.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시도된 ‘카카오톡 채널 고지서 발송’ 서비스는 주민들의 호응 속에 전국 다양한 기관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민원응대와 처리과정에서 구민에게 칭찬을 받은 우수 공무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 구청장이 직접 민원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등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주민센터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이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누락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민원현황을 점검해 적기에 처리되도록 지원했다.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양천구,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열어

24일 달집태우기·LED쥐불놀이 등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안양천 신정교 아래 제1·2야구장에서 ‘제22회 양천구 정월대보름 민속축제’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올해 마을의 평안을 기원할 ‘복청사자놀이’를 새로 도입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불꽃놀이’도 운영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불씨로 인한 화재·화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광다이오드(LED)’ 방식의 쥐불놀이를 진행하며, 대보름 세시풍속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쥐불놀이 제작 체험부스’도 함께 운영한다.

아울러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푸드 트럭과 푸드 코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사는 오후 2시 반부터 길놀이 풍물

공연을 시작으로 한국무용, 판소리, 경기민요, 평양검무, 외줄 타기 등 다채로운 전통예술 공연이 안양천 둔치 야구장에서 펼쳐진다. ‘민속놀이 체험부스’에서는 떡에 치기, 투호 던지기, 부럼 깨기, 팽이치기, 연 날리기, 소원씨 뜨기 등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다.

오후 6시부터는 본격적인 달맞이 행사가 시작된다. 사물놀이 공연으로 포문을 열며, 자치구 최고 높이인 12m 상당의 ‘달집 태우기’가 축제의 백미가 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월 1일 용왕산 해맞이 행사에서 수합된 주민 소원지 1,800여 장을 함께 태우며 액운을 떨치고 행복을 기원할 계획이다.

이어 달집 주변 ‘치신났기’와 ‘강강술래’로 흥을 돋운 후, 마지막 코너인 역대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로 대보름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서대문구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목표 초과 달성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현)는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 결과 목표액 8억 700만 원을 초과한 8억 6,300만 원을 모금해 106.9%의 달성률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사랑의 온도탑 제막을 시작으로 이달 중순까지 3개월간 사회복지공모금회와 구가 공동 추진했다.

이 기간 각계각층의 개인 기부자와

기업, 단체가 힘든 경제 여건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총 903건에 현금 3억 8,000여만 원 4억 8,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

이렇게 모인 정성은 관내 취약계층 가정의 이사비, 의료비, 교육비, 재해구호비 등으로 사용된다. 지난해의 경우 총 3,492건에 3억 4,000여만 원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쓰였다.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은평구의회, 서울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

서울은평구의회(회장 노만환)는 최근정형세미나실에서 서울구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2월정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의회는 서울 25개자치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자치구의회 상호간 교류를 강화하고 자정자치발전을 위해 협력하고자 매월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내달부터 은평목재문화체험장에서 목공예품을 만드는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목공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일 목공체험' 프로그램, 전문반과정, '찾아가는 목공체험' 프로그램으로 나눠 운영된다.

'일일 목공체험'은 목공을 처음 시작하는 주민을 위한 것으로 도마, 8각 의자 등 20여 종의 목공예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목공을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주민은 '목공 전문반 과정'에 참여해 민간 발급 목공지도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임형천기자 himhc@jeonmae.co.kr

구청 이모저모

3.1절 기념 태극기 거리 조성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제105주년 3.1절을 기념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효창공원 일대에 '태극기 거리'를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부터 효창공원 710m 구간 가로등과 나무에 태극기를 꽂아처럼 설치할 계획이다.

효창공원 정문(정양문) 앞 새순이 돋아나 양상한 가로수 20그루에는 태극기를 빼곡하게 달고 공원으로 들어서는 도로변 가로등에는 태극기를 가로기로 게양하게 된다.

이외에도 녹사평대로, 한강대로, 백범로 등 지역 내 주요 도로 36.5km 구간에 태극기 가로기 3200여 개를 게양할 예정이다.

1인 가구 지원 공모 진행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2024년 마포구 1인 가구 지원 공모사업' 참여 단체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마포구 소재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로, 안전, 건강, 외로움, 고립, 주거 등 5개 분야의 지정 주제와 자유주제 중 선택해 공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사업비 5,000만 원으로 4~5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비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보텀e 시스템(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보텀e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람작은도서관 공모 접수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2024년 사람작은도서관 공모사업'에 참여할 작은도서관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프로그램 운영, 자원활동가 활동, 환경 조성 등 3개 분야로 나눠 총 9,0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주 4일, 하루 6시간 이상 개방하는 구로구에 등록된 사람작은도서관이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2월 23일까지이며, 1개 도서관에서 2개 분야 이상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방법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평가 실적과 함께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경우, 공모사업 참여 전후 비교에 따른 개선 실적을 반영한다. 또 프로그램의 구성, 자부담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할 계획이다.

구민 정책 아이디어 집중 공모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승희)는 구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2024년 상반기 강북구민 정책 아이디어'를 내달 29일까지 집중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민선8기 강북구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 구현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공모는 강북구민뿐만 아니라 강북구 내 생활권을 두고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재난관리 분야에서 2관왕의 실적을 올리며 안전도시 위상을 인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서울시 통합지원본부' 운영 역량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등 재난안전분야 2관왕을 차지했다.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종합계획 추진

올해 10개 신규사업 추가

6대 영역별 150여개 사업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아동이 소리내어 함께 만들어 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최초 인증받은 이후 2022년 5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로 재인증을 받으며 아동친화 6대 영역별(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종합계획에는 지난해 추진한 141개의 아동친화사업 이외에 10여 개의 신규사업이 추가됐다. 신규사업은 '무지개 어린이공공원 조성' 사업, '아동권리 시민감사 양성 교육 심화과정'을 통한 전문 아동권리 시민감사 인력pool 구성, '어린이 과학 놀이터' 운영, '송정 청소년 스타디오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행안부 장관상

서울시 통합지원본부 역량향상 '우수구' 선정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구는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해 SK핸드볼경기장에서 공연장 화재·인파밀집 사고를 가정하고, 28개 유관기관과 2,000

여명이 참여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현장훈련'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도론훈련'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연계훈련'으로 진행, 초동 대응, 비상수습, 사고복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



성동 아동정책 원탁토론회 모습.

(성동구 제공)

개소' 등이다.

구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아동이 직접 아동정책을 고안해 내는 '성동 아동정책 원탁토론회' 개최, 성동구 대표 아동 참여기구인 '제6기 어린이참여위원회'의 주민

참여예산 모니터링, 노후 어린이공원 개선사업 모니터링 활동 등 아동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지난해에는 우수한 아동 친화적 환경

을 조성한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인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 유공자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동정책 전반에 아동이 참여하고 다양한 아동친화사업에 아이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진정으로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성동구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중구 '청소·방역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취업 연계

40세~70세 미만 선착순 모집...중구민 우선 선발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평소 구민·구직 선호도가 높은 '청소·방역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이 과정 이수자가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기본 개념 외에도 현장 안전 수칙, 청소기와 광택기 등 기기 사용법, 청소·소독 약품의 종류와 특성 등 중요한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

하고 교육 수료 즉시 취업까지 우선해 준다는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40세 이상 70세 미만 주민으로 전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등을 작성하면 된다. 중구 거주민을 우선 선발한다.

'청소·방역 전문가 양성과정'은 내달 18~21일 을지유니크팩토리에서 전문

강사가 ▲생애 경력설계 (6시간) ▲소독 및 방역 이론 및 실무 (5시간) ▲청소 도구와 기계 활용 실무 (8시간) 등을 진행한다.

내달 22일엔 교육 이수자들이 청소·방역분야 구인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현장 면접이 예정돼 있다. 이날 취업이 성사되지 않은 교육생도 중구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취업을 앞설해줄 예정이다.

임형천기자 himhc@jeonmae.co.kr

도봉구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개최...23일 중랑천변서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연석)가 오는 23일 중랑천변(도봉2동 서원아파트 105동 앞)에서 갑진년 새해를 맞아 도봉구민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2024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달맞이축제의 포문은 지역예술인 풍물단의 신명나는 길놀이가 연다. 길놀이는 이날 오후 5시 20분부터 도봉구청 광장에서 본행사가 진행되는 중랑천까지 이어진다.

중랑천 행사장에서는 오후 5시 40분부터 취타대의 웅장한 '대취타 연주', 도봉구청 브레이킹 실업팀의 역동적인 '비보잉', 사자춤, 외줄타기 등으로 꾸며진 '정문연희단 공연' 등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축하공연 후에는 오연석 구청장의 '축원문 낭독'에 이어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달집태우기'와 '불꽃놀이'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 달집태우기는 중랑천에 설치된 수변달집

에서 진행된다. 소원 만장으로 장식한 달집과 구민의 소망과 염원이 담긴 소원지에 구청장, 14개 동주민센터 대표, 주요내빈 등이 동시에 불을 붙여 달집이 타는 동안 소원이자 적힌 주민의 소원성취를 기원한다.

축제의 대미는 '불꽃놀이'가 장식한다. 오연석 구청장의 카운트다운에 맞춰 시작되며 10분간 불꽃들이 중랑천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강동구,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

신속·정확한 사업지구 경계 설정

준공 시점 발생 문제점 사전 예방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효율적인 토지개발사업과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개발사업(주

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새로이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그동안 준공을 앞두고 이뤄지는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사업계획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 재시공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을 해야 해 준공 지연, 추가 공사비 발생 등 각종 문제들이 발생해 왔다.

구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전검토제를 실시해 지적확정측량 전 담당 공무원이 사업지구를 현장 방문하고 법률 검토 등을 통해 공사 준공 시점에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구는 향후 사업 인허가 단계서부터 인허가 부서,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홍보해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았고, 효율적인 유관기관 협력 등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도 큰 성과로 꼽았다.

구는 2023년 '서울시 통합지원본부' 운영 역량 부문에서도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재난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구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구성, 지난해 3월 지휘역량강화센터 훈련에 참가

해 재난상황 시뮬레이션 수행, 효율적인 통합지원본부 운영, 지난 9월 재난안전상황실과 동일한 시스템을 종합상황실에 설치·연계하여 송파구 전 지역 24시간 모니터링 진행 등 재난 현장의 통합 대응능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동작구 "우리동네 맛집 추천해주세요"

건강한 맛·특색 갖춘 우수 맛집 선정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구를 대표할 수 있는 건강한 맛과 특색을 갖춘 '2024년 동작구청 인정 맛집' 선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동작구청 인정 맛집'은 지역 내 우수 맛집을 선정해 체제된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구는 오는 23일까지 지역에서 유명하거나 곳곳에 숨어있는 단골식당 등에 대해 주민 추천을 받는다. 추천대상은 동작구에 영업신고한 일반음식점으로 프랜차이즈, 주류(호프, 소주방) 및 보신식품(사철당 등) 취급업소는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업소명, 추천메뉴명, 추천사유(20자 내외) 등을 작성한 후 문자 전용 번호(☎010-7387-5407)로 발송하면 된다. 구는 추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등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시식단 평가를 거쳐 동작구청 인정 맛집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동작구청 인정 맛집 표지판 수여, 구 누리집 게시를 비롯한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동작구 대표 맛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오천진 용산구의장 "구민에 희망주는 정책 당부"

용산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개최

서울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는 전날 본회의장에서 제288회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8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채택하고 처리했다.

제288회 임시회는 오는 28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이어지며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부터 2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28일 제2차 본회

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오천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88회 임시회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는 중요한 회기"라며 "업무계획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기하는 사항들에 대해 적극 보완하여 개선해 주시길 바라며, 구민들에게 큰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마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불특정 다수대상 이상동기 범죄 근본 대책 마련으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함께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순기기자 ysg@jeonmae.co.kr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일정 확정

23일~내달 4일까지 11일 간 진행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최치효)는 전날 운영위원회(위원장 최미경)를 열고 오는 23일~내달 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7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29일까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의가 이루어지며, 내달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성북구, 사우나 시설 3곳과 안전쉼터 협약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최근 한파·불볕더위 등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호텔·모텔 사우나 시설과 안전쉼터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기존 한파·불볕더위 쉼터의 운영시간 제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올바른 손 씻기 교육기구 대여

인천 부평구 보건소는 오는 26일부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교육기구 대여사업’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및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기관은 기관별 1주일 단위로 연 2회까지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다.

올바른 손 씻기 교육기구는 손 세정 검사기, 형광 로션, 손 씻기 안내 배너로 구성돼 있다. 형광 로션을 세균으로 간주하고 손에 바른 뒤 검사기를 통해 손 씻기 전·후의 손 세정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체험형 교육기구다.

인천/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산업활동 수행 사업체 조사 추진

인천 용진군은 오는 3월 12일까지 관내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사업체 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2023년 12월 31일) 기준 총 2,977개의 사업체 및 현재 용진군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며 방법은 조사요원의 현장 면접 조사와 필요 시 전화조사, 인터넷 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창설 년월, 사업자 등록번호,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총 9개 항목으로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인천/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인천 계양구는 최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계양구 공유재산심의회는 당원직 위원 4명과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등 지방재정과 부동산, 건축 분야 등에서 학식과 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구 소유의 재산에 관한 취득·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는 심의기구이다.

회의에 앞서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됐으며, 본 회의에서는 공유재산 용도 폐지 등 총 3건에 대한 안건 심의가 진행됐다.

구는 의결된 안건에 대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윤환 구정장은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맹창수 기자 mchs@jeonmae.co.kr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등 심의

인천 용진군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제242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행정 사무감사계획 승인 등을 심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20일부터 21일까지는 각 위원회를 통해 의원 발의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안건 심사를 할 예정이며, 22일에는 본회의를 통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2024년도 행정 사무감사계획 승인 및 2023 회계연도 결산 감사 위원 선임을 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인천/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국제여객터미널 시설·서비스 개선 총력

인천항만공사는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안정화 및 카페터 여객 유치 등 한·중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설 및 서비스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20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2월 17일 기준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은 1일 약 688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대비 1일 19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항로 중 인천-다넬 노선은 이달 중 여객운송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IPA는 이달 인천-다넬 항로 여객 재개를 대비해 요녕 소재 여행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21~27일 덴마크·독일·루마니아·프랑스 4국 방문

해상풍력발전 기반 구축·스파&리조트 사업 논의

세계 10대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줄곧 해외 투자유치에 공을 들여온 유정복 인천시장이 미하 120억 달러(한화 약 16조 원)의 투자유치를 본격화한다.

유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과 투자논의를 위해 21일부터 27일까지 5박7일간의 일정으로 유럽 4개국 덴마크, 독

일, 루마니아, 프랑스 방문에 나선다.

이번 출장에서 논의되는 투자 금액만도 120억 달러에 달해, 민선 8기 3년차를 맞은 유 시장의 투자유치 노력의 성과가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먼저 유 시장은 덴마크 국영기업이자, 글로벌 해상풍력 1위 업체인 오스테A/S와 ‘인천·오스테드 해상풍력 발

전사업 및 인천지역 해상풍력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했다.

앞서 오스테드는 사업비 모두 약 60억 달러, 1.6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이후,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기업)은 인천지역 내 해상풍력 산업 육성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독일에서는 앞서 2022년 11월 유 시장이 유럽 출장에서 발표한 ‘유럽한인 문화타운’ 계획을 ‘글로벌한인문화타운’으로 확대, 재외동포들이 다양한 방식으

로 참여할 수 있는 비전을 설명했다.

이어 루마니아 부쿠레슈티를 찾아 테르메 그룹에서 직영하는 글로벌 웰빙스파&리조트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투자이행 화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2022년 11월 유럽 출장에서 테르메그룹과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는 진일보한 성과다.

또 미국 개발사업자인 파나핀토는 10억 달러, 영국의 글로벌 투자사인 윈월드 임팩트 글로벌이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의향을 각각 밝힘에 따라, 유 시장

은 프랑스에서 투자사 관계자들을 만나 인천의 투자 경쟁력을 알리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 시장은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경제자유구역, 국제공항과 항만 등 최고의 투자 환경을 갖춘 인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출장을 통해 인천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소개하고 해외 투자 자원을 유치해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일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6년 방치’ 청라공원 미디어타워 결국 교체

결로 현상·부품 고장등 문제 발견

인천경제청, 10억 원 대 예산 투입

설치 4년만에 고장 나 흉물로 방치된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미디어 조형물에 다시 10억 원대 예산이 투입된다.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올해 인천시 서구 청라호수공원의 미디어타워를 철거하고 새로운 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해 예산 16억원을 세웠다.

이 타워는 높이 8m 규모로 청라 개발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4년 수억 원의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뒤

인천경제청에 인계했다.

그러나 이 미디어타워는 하자 보증기간인 3년간 10차례 넘게 보수를 했지만 설치 4년만인 2018년 또다시 고장나 결국 작동을 멈췄다.

이후 이 타워를 설치한 국내 업체마저 폐업해 인천경제청이 다른 업체에 점검을 맡긴 결과 내부에서 결로 현상과 부품 고장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인천경제청은 내부 부품이 외국산 특히 제품이어서 대체품을 찾기 어렵고, 다른 부품과 호환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수년째 흉물로 방치된 타워를 결국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미디어 타워를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하기 위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실시실제 용역을 거쳐 작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토 중인 대안은 기존 타워를 철거하고 LED 디스플레이가 설치된 새로운 미디어 시설물을 설치하는 안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2021년 9월부터 1년간 시행한 ‘송도·영종·청라 야간경관 명소와 사업’ 용역에서 미디어 타워의 개선 방안을 찾으려 했으나 현장 실태와는 맞지 않는 대안이 제시되자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연수구, 구광과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협력

인천 연수구는 최근 지역 물류센터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26센터를 방문해 인력 양성 프로그램 협력과 함께 지역내 중장년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Coupang)이 운영하는 물류센터로, 구광이 유통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보관·배송을 맡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역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 구직자 등 일자리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구가 올해 지역 주민의 취업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물류산업 취

업 연계형 지게차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상호 간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 사업은 구가 산업현장 맞춤형 지게차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구광풀필먼트서비스가 우선 채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민·관 협력의 구인·구직 프로그램이다. 구는 오는 4월 지게차 양성 교육생을 모집 후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 취득, 기업 실무 수습 과정 등을 거쳐 5월부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포함한 산업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인천/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킹스칼리지스쿨 영종 유치, 시장이 나서야”

영종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송도만 행기는 영종차별에 분노”

인천 중구 영종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영종학부모연대는 20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킹스칼리지스쿨 영종 유치를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영종학부모연대와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운서동주민자치회, 영종운서새마을부녀회, 영종운서새마을협의회, 영종운서자율방범대, 공황신도시아파트연합회, 새인천시관광협회 중구지회, 새인천시아파트연합회중구지회로 구성된 영종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개발업자 배 불리는 인천경제청 행정에 분노한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영종, 송도, 청라국제도시 등 3곳이나,

국제학교는 현재 송도에 2곳(캐드윅, 칼빈메니토바), 청라에 1곳(달튼)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영종은 세계적인 국제공향이 위치한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지만, 국제학교 유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6월 경제청은 또 다시 송도에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홍콩에서 해로우스쿨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영종지역 국제학교는 10여 년째 방치하면서 송도만 행기는 경제청의 영종 차별에 영종지역 주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2022년 5월 유정복 시장 후보와 세계적인 명문 국제학교 영종 유치를 위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유 시장은 당선 이후, 영종에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경제청은 한술 더 떠 영종에는 송도국제학교 유치방식과 다른 방식(개발업자 선정 방식)으로 공모하겠다

고 밝혀, 영종 주민들과 마찰을 심하게 빚어왔다. 경제청은 국제학교 부지 3만평 중 일부인 1만평을 잘라내 상업용도로 개발하고, 그 이익금으로 나머지 2만평에 학교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경제청 공모 구상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익을 추구하는 개발업자 입장에서 남는 이익으로 학교를 지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건축비가 적게 들어가는 학교를 선택할 것이고, 부실공사와 학급 질 저하는 불 보듯 뻔한 일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영종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주민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경제청이 몰랐다면 이는 심각한 무능이고, 알았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제8대 인천경제청장에 윤원석 임명

인천시는 20일 제8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윤원석 전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을 임명(사진)했다.

인천경제청장은 개방형 지방관리관(1급) 직위로,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주변 지역의 개발, 국내·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윤원석 신임 청장은 성균관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1986년 코트라에 입사해 벤쿠버무역관장, 부산

윤 신임 청장은 앞으로 3년 동안 ‘세계 초일류도시 구현을 선도하는 IFEZ’ 목표 아래 바이오·헬스케어, 관광레저 및 첨단산업 등 핵심전략 산업의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해외 명문 교육기관 및 국내 대학 유치,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 조성, 인천 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민간기업에서 보여 준 경영능력과 투자유치 감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고 다양한 투자 전략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더욱

코트라 출신 투자유치분야 전문가

무역관장, 로스앤젤레스KBC 센터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후 임원으로 승진,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을 역임한 산업·통상·투자유치 분야 전문가이다.

KOTRA 근무 당시 미국, 캐나다 등 해외 현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과 국내기업 간 무역·투자 협력을 촉진해 다수의 M&A와 외국기업의 FDI(해외직접투자)를 유치했다. 이후 한컴그룹(한글과컴퓨터) 해외사업총괄사장으로 근무하며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해외 진출 성과를 거뒀다.

높은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나아가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에 줄 것”을 당부했다.

윤 청장은 “지난 20년간 이뤄낸 눈부신 성과와 고객 중심, 성과 중심, 사람 중심의 3대 경영 방침을 접목해 인천을 역동적인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이자, 미래산업을 선도적으로 주도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세계 최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초일류 도시의 꿈을 이루는 데 모든 역량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서구, 대기방지시설·IoT 설치 지원 추진

인천 서구는 올해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지난 5년간 경제·환경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366개 시설에 대해 282억 원 가량을 지원해 인천시 군·구 최대 지원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사업들로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영세한 사업자의 자금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저감에 따른 대기질 개선 성과도 있다고 본다

올해 지원 대상은 관내 대기 배출시설 4·5종의 중·소기업으로 ▲노후 방지시

설 운영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주요 민원 발생 사업장 중 환경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 ▲공동방지시설 운영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한다.

또 2025년 6월 30일까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IoT 설치지원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측정기기 의무 부착 대상을 우선 선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3월 4일까지 서구청 환경관리과로 사업참여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인천/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공모 선정

경북 안동시는 도에서 공모한 '2024년 시군 특화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도배 및 집수리 기술자 양성사업'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으로 총 1억 9천만 원 규모다.

'도배 및 집수리 기술자 양성사업'은 지역민 10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특강 등을 제공하며 가톨릭상지대학교와 컨소시엄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은 만 40~60세 신중년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인건비를 최대 10개월간 월 50~7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동/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1305 건강검진 챌린지’ 본격 운영

전남 나주시가 시민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내달 1일부터 4주간 '1305(하루에 30분 주 5일 걷기) 건강검진 챌린지(1기)'를 진행한다.

지난해 1500여 명이 참여했을 만큼 큰 인기를 끌었으며 걷기 실천율 향상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로도 이어졌다. 실제로 캠페인 실시 전후 걷기 실천율을 조사한 결과, 사전 38.8%보다 19.2% 향상된 58%를 나타냈다.

건강검진 챌린지 신청은 19일부터 23일까지 시 보건소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모집 안내문 QR 코드 스캔으로 가능하며 선착순 500명을 모집한다.

나주/ 범대중기자 Beom@jeonmae.co.kr

‘로컬푸드 행복장터’신규 농가 모집

경남 함안군은 내달 18일까지 '로컬푸드 행복장터' 신규농가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선농산물은 군에서 직접 농·축·임산물을 생산하고 소포장 납품이 가능한 농가이며 가공식품은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에 있어야 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농산물우수관리(GAP),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한다.

참가 희망농가는 군농업기술센터 먹거리지원 담당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함안/ 김정도기자 jd2009@jeonmae.co.kr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실시

전남 곡성군은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국내산 과일, 채소, 우유, 계란 등 지정된 10개 품목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6만 9000원까지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다. 사용은 내달 4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진행되며, 한 번 신청으로 매월 바우처 카드가 자동 충전된다. 사용하지 않은 2천원 미만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 가능하다.

곡성/ 김영주기자 Jjoo-K@jeonmae.co.kr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 상시 운영

경북 예천군은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생활편의 증진과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을 상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5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홍보소통과 전산정보팀(☎ 650-6073)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읍·면 회의실, 마을회관 등 주민들이 요청한 곳으로 강사가 직접 방문해 진행하며 스마트폰의 기능에 대한 설명과 활용법 외에도 군 유튜브 등 SNS 홍보 채널 이용 방법과 사회초년생 문제 해결에 도움 되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도 교육한다.

또 4월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배움터'를 통한 찾아가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예천/ 장세천기자 jangsch@jeonmae.co.kr

진주시,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속도… 지역문화 거점 조성

추진상황 점검보고회 개최

2025년 착공·2027년 완공

경남 진주시가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틀위해 시는 지난 19일 건립 추진 상황 점검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옛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와 연계해 진행되고 있는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사업과 관련, 현재 추진 중인 설계 진행현황과 건축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은 2019년 6월 시와 국립중앙박물관이 현재 진주성 내에 있는 국립진주박물관을 옛 진주역 철도부지로 이전 건립하기 위한 사업추진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시작돼 지난해 7월 국제 설계공모를 거쳐 10월부터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에서 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옛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는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을 비롯해 철도문화공원, 문화거리 조성, 공립전문과학관 건립, 시민광장·숲 조성 등을 통해 방치돼 있던 도심지 내 유휴 부지를 지역문화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이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은 총사업비 855억 원을 들어 부지면적 2만 79㎡, 연면적 1만 4780㎡의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추진된다.

최근 박물관 트렌드에 맞는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진주시민들의 일상과 함께 하는 문턱이 낮은 박물관 건립을 목표로 설계 진행 중이며 오는 2025년 공사를 발주해 2027년 사업을 완공할 예정이다.

조규일 시장은 "철도문화공원을 비롯해 앞으로 새롭게 조성될 도시숲, 시민광장 등 옛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 전체와 연계된 동선 체계와 콘



진주시는 지난 19일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추진상황 점검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주시 제공)

셉트 및 경관조형 등이 서로 잘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공간이 되도록 추진해

달리"고 당부했다.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의성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 선정

우수 인센티브 제공 등 높은 점수

경북 의성군이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담당자 보호' 등 3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에 이은 쾌거다.

또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항목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민원 우수 인센티브 제공,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법정민원 신속 처리 등 평소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고 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주수 군수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민원서비스 제공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으로 2024년도에는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성/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무안군 '걷기좋은 도시, 위커블시티' 조성 총력

실천계획 보고회 개최

전남 무안군은 최근 '걷기좋은 도시! 위커블시티 무안' 2024년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 6개소 50.5km의 산책로 조성과 산책로 위치 알림 기초번호판 85개소 설치 등 23개의 실천과제 이행으로 이어졌다.

이번 보고회에는 읍면별 걷기동아리

지원 사업, 무안 노을길 걷기 및 마라톤 대회 개최 등 14개의 신규 과제가 추가로 발굴됐다. 또한, 군 위커블시티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통해 도심 산책로 활성 방안을 수립하여 산책로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삼 군수는 "어느 지역의 군민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군민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 실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무안/ 김진삼기자 kjs@jeonmae.co.kr



하동군은 국내 호텔 전문기업 아코르 엠배서더 코리아의 파스칼 일행이 호텔 및 리조트 분야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제검토하기 위해 최근 재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동군 제공)

아코르 엠배서더, 하동군 호텔 투자 후보지 재방문

입지여건 현장 등 면밀 검토

경남 하동군은 국내 호텔 전문기업 아코르 엠배서더 코리아의 파스칼 일행이 호텔 및 리조트 분야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제검토하기 위해 최근 재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8월에 이은 두 번째로 군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입지 조건을 중심으로 대형 관광시설 유치에 위한 후보지 검토 작업이 진행됐다.

군은 섬진강, 다도해, 화개천, 하동호 조망권을 갖춘 지역의 입지 및 부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호텔 등 대형 관광시설 유치 후보지 최종 15곳을 선정, 투자유치에 힘쓰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군 담당 실무진과 도 투자유치단이 함께 호텔 조성 후보지를 현장 방문해 투자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했다.

하동/ 임홍섭기자

imhs@jeonmae.co.kr

남해고속도 사천IC 진출입로 급커브 구간 사고 빈발

한국도로공사 선형개량 공사후

교통사고 증가…대책 마련 절실

남해고속도로 경남 사천IC 진출입로 급커브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수십년간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20일 주민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천나들목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확장과 선형개량을 한다면 진주시 정촌면 방향으로 500m가량 이전 건설했다.

그러나 당초 직선의 IC를 오히려 S자형 굴곡도로로 조성해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 완공 이후인 2013년부터 현재

까지 월 2~3회 정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화물차량에 적재돼 있는 화물류(맥주 병등)이 쏟아져 도로가 통제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사고 당시 화물차는 사천IC를 빠져나온 뒤 사천읍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맥주 박스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적재함을 뚫고 도로 위로 쏟아져 교통이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으니 이전인 2016년, 2017년, 2019년 등에도 이 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사천시민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부터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도로공사는 사천나들목(IC)S자형 도로 선형변경을 직선으로 원상복구에 이곳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요구했지만 "공사 측은 현재까지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사천시민참여연대는 "2013년 S자 선형 변경 전 직선 선형일 때는 교통사고가 한 번도 발생한 일이 없었다"면서 "오히려 요금소 밖 직선 진·출입로 선형을 S자형 급커브를 변경해 종전보다 교통정체 등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 및 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해 도로 선형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사천/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경산시, 우리아이 보듬병원 운영 사업 본격 시행

야간·휴일 의료기관·약국 지정 운영

경북 경산시는 19일부터 평일 야간·휴일에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아이 보듬병원 운영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보듬병원 운영 사업 수행자를 모집한 결과 파티마연합 정소아청소년과의원, 광장약국을 선정해 협

약을 맺었다.

보듬병원은 2026년까지 2년간 평일은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소아 청소년 경증환자를 위해 진료할 계획이다.

보듬병원 운영 사업은 지난해 7월 고항사랑기금사업 제안서 공모와 선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아이 낳기 좋은 경산' 슬로건과 결맞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시는 소아 진료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의료현장과 소통해 오는 4월께 읍·면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1차 의료기관과 파트너 약국을 추가 선정해 부족한 의료 혜택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경산/ 변경호기자 byeon-KH@jeonmae.co.kr

전북 남원시는 축산악취개선 분야에

31억원을 집중투자해 악취 문제 해소에 남새없는 깨끗한 농촌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축산악취 관련 4개분야 16개 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노후화된 분뇨처리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2022년부터 국비공모사업에 선정

돼 추진하는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45억 원을 투입해 양돈농장 22개소의 냄새민원을 개선했다.

이외함께 축산악취 개선과 관련된 분뇨처리 및 악취개선, 퇴비발효촉진 등 16개 사업을 2월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남원/ 오강식기자

oks@jeonmae.co.kr

동 정



명예시장간담회
심규연 강원 동해시장은 21일 오전 11시 시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명예시장 간담회 참석.



제5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박경규 충남 아산시장은 21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5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의 참석.



읍면 현안건의사항추진계획보고회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는 21일 오전 9시 30분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2024년 읍면 현안건의사항 추진계획 보고회에 참석.



제17회 장애인생활개선사업협약식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는 21일 오전 11시 군수실에서 열리는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전 및 제17회 장애인생활개선 업무협약식에 참석.



제5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는 21일 오전 10시 충남도청에서 열리는 제5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의 참석.



안전보건역량 강화 교육
오도창 경북 영양군수는 21일 10시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년 공무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역량 강화 교육에 참석.

2023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충남 보령시는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 2023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총 5등급(가~마)으로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자체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마다 하며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등 3개 분야, 5개 항목, 20개 지표를 두고 정량·정성 평가를 한다.

시는 전국 75개 시 중 상위 30%에 들었으며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는 매우 우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처리 등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동일 시장은 "올해에도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보령/ 이견영기자 leegy@jeonmae.co.kr



안양산업진흥원, 산·학·관 상호교류 증진 협약 체결

경기안양산업진흥원은 최근 안양대 및 위원목·고대과와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창업 육성 생태계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진흥원은 기후테크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경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안양대에서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연구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문 협조를 하고,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업가 정신을 배양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펠릿 제조업체(위원목·고대과)는 관내 기업과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기업 간 협력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성남시, 사우디 스마트시티 구축 손 잡는다

알울라왕립위원회와 협력 영상회의 개최
상반기 방문예정...“선진기술 해외서 실현”

경기 성남시가 사우디아라비아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에 협력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울라왕립위원회(RCU, The Royal Commission for AlUla)와 사우디 북서부에 위치한 알울라 지역에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에 참조할 수 있는 성남시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RCU의 요청으로 이뤄진 영상회의(사진)에서 시는 그동안 구축 및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 교통, 안전 및 복지, 환경, 경제 및 문화, 행정, 기반 시설 등 분야별로 우수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도심 드론 배송 실증사업 ▲드론을 활용한 열지도 구축과 지하 시설물 3차원 데이터 구축 사업 ▲지능형 교통체계구축(ITS) ▲



AIoT(지능형 사물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초대규모 네트워크 구축과 핵심기술 실증서비스 ▲안전관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비롯해 10여 개 사업을 상세히 소개했다.

RCU와 올 상반기 내 성남시 방문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구체적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시는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형 스마트시티 구축 기술이 해외 도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RCU는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에 위치하며, 우수한 자연 및 문화적 전통을 지닌 알울라 지역을 보존 및 개발하기 위해 2017년 7월에 왕실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이일영기자 leey@jeonmae.co.kr

박동식 사천시장, 경상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 취득

박동식(사진) 경남 사천시장이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박 시장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가좌캠퍼스 GNU컨벤션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경상국립대학교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는다.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3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등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확보하고자 경상국립대 행정대학원에 입학했다.

특히, 2022년 7월 1일 제11대 사천시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바쁜 공직생활 중 틈틈이 여유시간을 쪼개며 학업에 매진한 결과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게 됐다.

박 시장은 사천시 1호 셀러리맨으로서 2023년 경상남도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해 약 34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과, 교부세과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으로 특별교부세 23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에 큰 역할을 펼쳤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여·야 간 입장 차이로 9개월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을 때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면서 경남의 18개 시장·군수들이 참여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 릴레이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면서 제4회 대한민국 청렴대상 기초자치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박동식 시장은 "전문성 있는 시장으로서 지역발전과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생각으로 학업을 병행했다"며 "이번에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해 행복도시 사천 건설을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천/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정선 삼탄아트마인, 동시대미술 기획전 '사대천왕'

강원특별자치도와 정선군문화예술광산, 삼탄아트마인(Samtan Art Mine)은 오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삼탄아트마인 현대미술관 캠(CAM)과 삼탄뮤지움에서 현대미술가 4인의 '사대천왕(四叟薦旺)' 전시회(포스터)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봄맞이 기획전으로 '아티스트 4명의 땅(전시회)'이란 뜻의 '사대천왕(四叟薦旺)'展은 현대미술가 4인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삼탄아트마인 주최, 예술법인 가이아(주) 주관, '아리랑의 고장, 국민고향 정선' 정선군청 후원으로 한다.

참여 아티스트는 재중교포 화가 권



학준(Quan Xuejun), 생대미술가 박봉기(bonggi park), 한중 아트프로젝트 샤야(SAYA), 위세복(Wie Sebok) 조각가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경기도의회, 제5차 의정홍보위 개최

경기도의회 제5차 의정홍보위원회(위원장 정운경) 회의가 지난 19일 의회 정당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정운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부위원장, 김선희(국민의힘, 용인7),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 이병길(국민의힘, 남양주7) 위원, 도연수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지나해 광양시 봉강면 청년회의 달빛태우기 행사모습. (광양시 제공)

“정월대보름 광양에서 액운 날리세요”

전남 광양시는 갑진년 정월대보름, 빛의 도시 광양으로 떠나는 로맨틱한 달빛여행을 제안했다.

광양은 구봉산전망대, 배알도 섬 정원, 마로산성 등 로맨틱한 달맞이 명소와 광양문화원을 비롯해 읍면동 마을 곳곳에서 펼쳐지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풍성하다.

구봉산전망대는 탁 트인 공간에서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풍광과 자유를 만끽하고 아름다운 일몰에 이어 반짝이는 야경까지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을 품기에 안성맞춤으로 망루, 건물지, 우물터, 명문이 새겨진 기와 무더기 등이 은은한 정취를 자아낸다.

한편, 오는 23일 광양문화원 광장에서는 광양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고 정월대보름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세시풍속놀이 축제가 열린다.

시민안녕 기원제에 이어 줄다리기, 윷점 치기 등의 민속놀이, 강강술래, 퓨전국악 등의 공연과 함께 민속음식 나누어 먹기, 복주머니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이 마련돼 있다.

구봉산전망대, 배알도 섬 정원, 마로산성 등에서 달빛여행
읍면동 마을 달집태우기, 민속놀이 등 정월대보름 행사 풍성

그 밖에도 24일 정월대보름 당일에는 광양읍, 봉강, 옥룡 등 16개 마을 곳곳에서 당산제, 달집태우기, 풍물놀이 등 다채로운 정월대보름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장소, 시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정인화 시장은 20일 "갑진년 정월대보름엔 탁 트인 달맞이 명소와 다채로운 세시풍속 놀이가 풍성한 광양에서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길원 대기자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4년 연속 '우수'

경기 이천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적극적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기관장의 민원행정 활동 ▲민원우수 인센티브 제공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민원 담당자 보호 등의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평가군(기초지자체-시 유형) 평균인 81.89점보다

5.16점 높은 87.05점을 획득하며 우수 등급인 '나'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행안부의 민원지침 반영도가 높은 점과 고충민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에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김경희 시장은 "종합 평가 결과를 토대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 지원배기자 wonB4585@jeonmae.co.kr

포토뉴스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추진계획 보고받다
경기도의회 서광범(국민의힘·여주1) 도의원은 최근 경기도청 소회의실에서 탄소저감을 위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3개 부서간 협력 추진 계획에 관해 보고받았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광주시 친환경농업 연합회장 이취임식 개최
(사)경기 광주시 친환경농업 연합회는 2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8·9대 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제9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병권 회장은 "전임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광주시의 친환경 농업 발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광주/ 이만호기자 leemh@jeonmae.co.kr



경산시, 2월 확대간부회의 개최
경북 경산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탐담국 직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경산/ 변경호기자 byeon-KH@jeonmae.co.kr



NH농협 고성군지부, 향토장학금 기탁
NH농협 강원 고성군지부는 전별 제휴카드 적립기금 5,139여만 원을 고성향토장학회 장학기금으로 함명준 군수에게 기탁했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순천교육지원청, 순천마을배움터 나눔 컨설팅
전남 순천교육지원청은 최근 3일만에 걸쳐 2024학년도 마을배움터로 선정된 19개소 마을 배움터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했다.

서길원 대기자



보령시 4-H 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및 연시 총회
충남 보령시 4-H 연합회는 전별 연합회 회원과 내빈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제53대, 제54대 회장의 이취임식과 연시 총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보령/ 이견영기자 leegy@jeonmae.co.kr



대한민국족구협회,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복구성금 기탁
대한민국족구협회와 충남족구협회는 전별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성금 1,300만 원을 서천군에 기탁했다. 홍기용 대한족구협회 회장은 "이번 기부금이 큰 피해를 치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반본(返本) 체덕지(下)

강상헌의 하제별곡



문명비평가·우리글진흥원 고문

아니다. '대한자강회월보'에 실린 글(1906년)이다. '무릇 교육은 체육 덕육 지육의 3대 기강(紀綱)이 있어야 할지니...' 또 이런 글(대한매일신보 1908년)도 있다. '셋 중 (하나를) 취해야 한다면 덕육과 지육을 버리고 체육을 취할 지로다.' ...

저 통찰, 놀랍다. 그러던 것이 언제 어찌다 지덕체로 순서가 뒤집어진 것일까?

혹 서양문물을 먼저 받아들였던 일제(日帝)의 장난일까? 아니면 문과 무 즉 문무(文武) 밖에는 사람의 가치를 매길 이미지가 없었거나 대체할 적절한 개념을 찾기 어려웠던 과거 전통사회의 관습 때문에 순서가 (의도적으로) 바뀌었을까?

서양식 스포츠(운동)의 시범을 보고서는 "종들 시켜서 하지 왜 몸소 저런 (천한) 짓을 하느냐?"고 했다면, 또 운동복 차림 여성의 테니스를 보고 '흥측하다.' 했다면 그 시기의 (신기한) 이야기를 우리는 익히 기억한다. 그 후 우여곡절(迂餘曲折), 세상의 변화를 겪어내고 우리나라는 오늘에 이른다. 생각하니 '지덕체' 순서는 저 구시대 사고(思考)의 못난 흔적은 아닌지. 과거시습을 넘어서야 '사람' 대접을 받던 전통의 질곡(桎梏)에서 아직 우리는 신음하고 있는 게다. 아니면 지금 정녕 이럴까?

존 로크의 생각은 탁월하다. 지금 (우리에게) 풀어내도 교육의 뜻으로 손색없다. 아마 우리는 그 동안 정신을 제쳐두고, 물질의 풍요만을 바라

보며 살았던 게다. '가난을 벗어나'는 일념(一念)으로 사느라 영리한 이가 어진 이를 패고, 약자가 늘 통곡하는 꼴까지 방치했던 게다. 그러다 약자는 함께 살 이웃이 아니고 멸시받아 당연한 루저(敗者 패자)가 됐다. 기득권은 위너(勝者 승자)로 섰다. 좋은가? 당연한가? 위너의 그 '자적'은 누가 준 것인가?

교육을 바로 세우면 기강과 아름다운 마음이 (차츰)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한다. 우선 체덕지(순서)의 정신을 되살려 우리의 어린 사람들이 바른 몸(체)과 넉넉한 마음(덕)을 가지고 좋은 공부(지)에 나서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서로 증오를 겨루는 악육강식의 정글 속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사람을 소외시키는 세상에서 저 혼자 뛰어나서 어찌 기쁠 것인가.

'행복지수 1위'라고 (주로 서양의) 언론들이 늘 신기해하는 나라 부탄의 경우를 살펴 필요도 없다. 다만 우리에게 오래 전에 푸근했던 인정(人情)이란 말이 어디로 어떻게 언제 사라졌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싶다. 사람의 정은 아버지와 자식 사이와도 같다. 모정(母情)이나 부모 섬김 같은 마음쓰임이 '나(내 새끼) 먼저'의 이기적(利己的) 울타리를 두르며 삭막한 사막이 됐다. '경쟁만이 살 길'이라던 '지덕체' 구조의 음험한 모략이려니. 이제 '체덕지' 반본(返本)의 지혜로 우리를 바꾸자. 고운 세상, 본디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고

이 현 호

경기 포천시 부시장



추운 겨울이 가고 이른 봄을 맞이하는 우수다. 바야흐로 봄의 시작이다. 따뜻해진 날씨에 산천객의 발걸음은 저절로 산으로 향한다. 반가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봄철 불청객의 소식이 들린다. 바로 '산불'이다.

우리 포천시는 전체 면적의 64%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포천 국립수목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 증된 포천 한탄강, 명성산으로 둘러싸인 산정호수 등 빼어난 산세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유명하다. 이렇듯 보호해야 할 산림 면적이 크다. 산림은 피해를 입으면 다시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가을과 겨울 바짝 마른 낙엽 위로 작은 불씨라

도 뵈면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포천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등 초동진화체계를 갖추고 산불진화 민간헬기 입차,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 대형산불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산불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산림에서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5년간 우리 시에서는 연평균 9건, 10.23ha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약 82%가 봄철에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6건의 산불은 담뱃불 등 실화로 인한 화재였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화기 사용은 물론 인화물질을 휴대해서도 안 된다. 불을 피우거나 담배꽂이를 버리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다. 산림인접지역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게다가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 논두렁과 밭두렁을 많이 태우게 되는데 불씨가 바람에 날아가 산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활용하길 바란다.

이렇듯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완전히 산불을 예방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이다. 산불이나 산불 발생위험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119 또는 포천시청 산림과(031-538-2349)로 즉시 신고할 것을 부탁드린다.

오직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만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미래 세대에 다시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후면 카메라로 안전모 미착용 단속 확대

독자투고

정 대 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현대는 배달산업 발달로 이륜차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시간에 쫓겨야 하는 특성상 위험 운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면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후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신호·속도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그로 인해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가 18.9%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륜차의 교통사고 시 사망비율이 3배나 높은 안전모 미착용은 당시 함께 개발되었으나 오만

속 방지를 위해 1년간 시험 운영하며 관독 기능을 고도화하였고 현재는 지난달 8일부터 이번 달 29일까지 단속과 계도를 홍보한 후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설치 장소는 전국 73개소로 서울 3개소, 부산 7개소, 인천 3개소, 대전 2개소, 경기 남부 36개소, 충북 4개소, 충남 2개소, 경북 5개소, 경남 6개소, 전북 4개소, 제주 1개소 등이다. 또한 경찰에서는 기존 전면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하여 지난해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향후 지자체와 협조하여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해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단속 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이륜차는 사륜차에 비해 사망사고 비율이 2배나 높은 만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하길 바란다.

건강한 학교생활 위해 필수예방접종 여부 체크

의학칼럼

홍 은 희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건강증진위원회

등 총 3종이다.

예방접종 내역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미접종자의 경우가 끼운 자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받을 수 있다.

또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 등록이 누락됐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 등록을 요청, 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단, 예방접종 급기자는 진단(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급기 사유의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건강증진의원 홍은희 원장은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집단 면역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며 "입학 전 예방접종 여부를 체크하고, 미접종자는 접종을 완료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국 가예방접종과 HPV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홈페이지(https://nip.kdca.go.kr)에서 찾을 수 있다. 건협 건강증진의원원은 Tdap(또는 Td)(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6차, HPV 국가예방접종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입학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기대와 설렘 가득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필수 예방접종' 완료 여부이다.

초등학교 필수예방접종은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5차, IPV(폴리오) 4차, MMIR(홍역, 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모두 4종이다. 중학교의 경우 Tdap(또는 Td)(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차(여학생만 대상)

Opinion

전국매일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투고, 사설, 민평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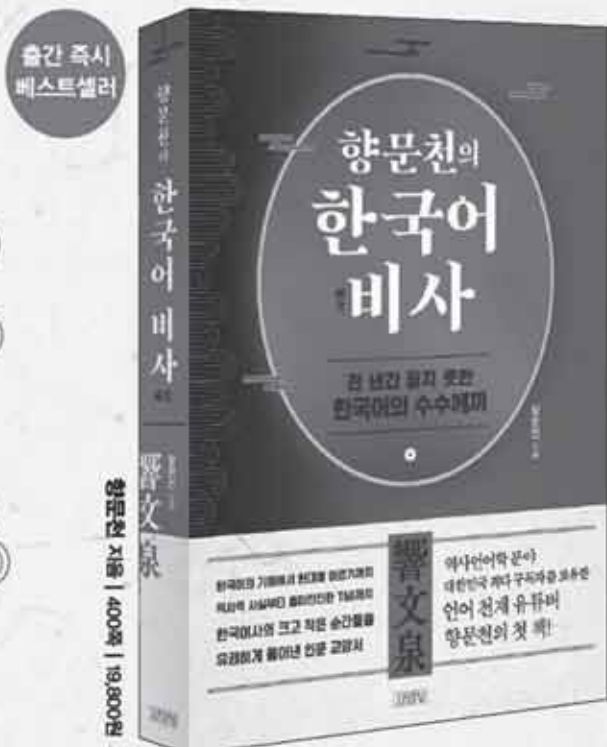
주소 (우 13300)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수암구 한남대로 1222(수진동, 제충왕릉)
전화 1988-5052 / 팩스 031-758-4380 / 홈페이지 제충 www.jeonmae.co.kr

저부 불신의 담론, 기고, 특집 등 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국매일신문		www.jeonmae.co.kr	
발행·편집·인쇄인: 최정		사장 박종필	
발행·편집·인쇄인: 최정		편집국장 이일영	
대표전화	1588-5762		
정 치 부	031-755-5600	지 방 부	031-755-5622
경 재 부	031-752-0256	광고문의	070-4325-3858
사 회 부	031-755-3484	FAX	031-758-4360
전국취재본부			
서울본부	02-749-0922	세종본부	044-865-8000
인천본부	032-751-1478	강원본부	033-251-4866
대구본부	053-471-1111	충남본부	041-668-3722
경북본부	054-841-1111	구미본부	054-458-1111
경기북부본부	031-967-1616	경주본부	052-361-0145
충남본부	061-742-8181	제주본부	064-723-1950
경남본부	055-761-7882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수진동, 제충왕릉)			
1997년 6월24일 창간(등록번호 가-43호(일간))			
본사제휴사: 중국 요양일보사 조선일보			
구독료: 월 19,000원 / 1부 7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시대와 국경을 넘나드는 종횡무진 한국어역사

한국어 변화의 흔적을 더듬어가다 보면 숨겨져 있던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향문천의
한국어 비사천 년간 풀지 못한
한국어의 수수께끼한국어의 기원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사실부터 흥미진진한 TMI까지
한국어사의 크고 작은 순간들을
유쾌하게 풀어낸 인물 교양서

"한국어는 신라어의 후예일까?"
"일본어는 백제어의 후예일까?"
"조상들은 외국어를 어떻게 공부했을까?"
"韓은 어떻게 우리 민족의 자칭이 되었을까?"
"과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불렀을까?"

향문천 역사언어학 분야 대한민국 최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향문천-글을 올리는 샘'에서 언어와 관련된 콘텐츠를 연재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가란어, 여진·만주어 등 동아시아 역사·비교언어학이다.

kt

2024 커리어의 시작

디지털 혁신은 당신으로부터, KT와 함께

대한민국 통신과 IT 산업을 이끌어온 KT가
보다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갈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 1차: 2024년 2월 16일(금) ~ 3월 3일(일) ※ 연중 수시 공고 오픈 예정

[모집 분야] AI, Cloud, Data, IT

[주요 직무] 솔루션 아키텍트, 플랫폼 엔지니어, SW개발, 분석/설계,
IT프로젝트 PM/PL, IT컨설팅, IT기술영업/제안 및 수행

[모집 인원] 사원급부터 임원급까지 전 직급 대상 최대 1,000명 규모

[접수 방법] KT 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kt.com>) 온라인 지원



채용 정보 보기